

청년 정신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돌려주다



태화샘솟는집은 아산재단의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태화샘솟는집 김혜진 팀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직원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태화샘솟는집은 올해 38주년을 맞으며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 아산재단의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해 사회적 고립 청년 정신장애인을 위한 회복스카우트사업의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태화샘솟는집 김혜진 팀장은 “회복스카우트 사업은 고립된 청년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재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도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우리 기관의 회원들이 20대에 발병해서 이제 50대가 되었는데,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과업을 달성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시작되는 20대에 사회재활훈련을 받는다면 좀 더 빨리 회복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해 회복스카우트 사업을 기획했어요.”

청년 정신장애인을 탐색하고 발굴하는 회복스카우트

국내 최초 정신재활시설로 문을 연 태화샘솟는집은 미국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인 클럽하우스 모델을 활용해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정신장애인이 환자가 아닌 ‘회원’으로 불리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 도움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있어도 오랫동안 대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 연령대가 함께 있다보니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해졌다. 김하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청년 정신장애인이 고립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심

리적 거부감과 정신재활시설 정보 부족을 꼽는다. “고립된 청년 정신장애인이 보다 빨리 회복하려면 우선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예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못해서 ‘시설에는 가기 싫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하며 조금 더 빨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복스카우트(Scout)’라는 이름은 고립된 청년 정신장애인을 탐색하고, 발굴해 회복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았지요.”

태화샘솟는집은 병원과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을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정신장애인을 연결해 줄 것을 부탁했다. 대상자가 연결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만나고, 평소에도 1:1 채팅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다. 네트워크와 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도 기획했다. 한현정·허순강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최근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인생네컷 찍기, 만화카페 가기, 맛집 탐방 등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이벤트로 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한다. “청년 정신장애인들이 같은 또래에게 인기 있는 체험과 이벤트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조금만 밀어주면 같이 하고, 더 잘 참여해요. 함께 가는 사회복지사들도 같은 또래니까 더 편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만남을 거듭하고 대상자들이 마음을 열면 우리 시설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보라고 권하는



회복스카우트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가 태화샘솟는집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태화샘솟는집에서는 직원과 대상자 회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데,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으니 가능한 한 매일 출근하게 했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면 스스로 관리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하는 방법도 익히니까 가족관계도 많이 좋아집니다.”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회복스카우트를 통해 태화샘솟는집이 만나고 연락을 이어가는 고립 청년 정신장애인은 46명, 그 중에서도 매일 태화샘솟는집에 나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9명이다. 병으로 인해 사회활동을 피하고 가족관계도 힘들어져 고립되었던 청년 정신장애인들이 이곳 태화샘솟는집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며 자신감을 얻고 일상을 회복해나가고 있다.

태화샘솟는집은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다.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연륜 있는 선배가 대상자들의 회복멘토가 되어 정신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업,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혜진 팀장은 “발굴 경로도 더욱 확대하고, 매뉴얼 작업을 해서 정책적으로 확산해 더 많은 청년 정신장애인을 돕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 편집부